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 첫 성과 반드시 만든다”

현대차지부, “2018년 임투 승리 전 조합원 출정식” 열어... “최저임금투쟁, 대공장 노동자 임금인상 투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허부영)가 5월 23일 울산공장 본관 앞 민주광장에서 “2018년 임투 완전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출정식”을 열고 2018년 투쟁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출정식 투쟁사에서 “2001년 4만 조합원으로 시작한 금속노조는 2018년 현재 네 배가 넘는 17만 3천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다. 2014년 민주노조 깃발을 세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5년의 투쟁으로 삼성의 80년 무노조 전략을 무너뜨리고 노조 인정과 간접고용노동자 직고용 합의를 끌어냈다”라고 보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1,700명으로 늘어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울산지역 조직화를 마치고 전국조직화를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울산지역 서비스센터에 가면 조합원들에게 반갑다고 따뜻하게 손잡아주시라”라고 당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포스코 사내하청 현장에 금속노조 깃발이 올랐다. 현대제철 당진 순천공장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3천 명을 넘

었다”라며 “노조 할 권리, 누구나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직장에 들어가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국회의 상여금과 식대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업범위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정부가 단위사업장의 노동시간, 통상임금, 임금인상조차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최저임금투쟁은 대공장 노동자 임금인상 투쟁과 맞닿아있다. 최저임금 개악 저지 투쟁을 현대차 임금인상 투쟁이라고 생각하자. 5, 6월 투쟁, 허부영 지부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 2018년 투쟁 승리를 위해 현대차지부가 노조의 선봉에 서서 돌파하자”라고 독려했다.

허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출정식 투쟁사에서 “2018년 임투는 대의명분이 있는 투쟁이다. 노조의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허부영 지부장은 “지혜로운 조합원들은 잘 알고 있다”라며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은 대공장 노동자의 임금을 깎지는 요구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조합원의 임금과 권리를 사수하는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허부영 지부장은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은 정권과 자본이 만든 사회 양극화와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으며, 재벌개혁을 향한 전략이다”라며 “적당히 흥내만 내지 않겠다.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결심하면 할 수 있다. 올해 반드시 첫 디딤돌을 놓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허부영 지부장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업범위 개악을 규탄하며 “민주노총이 투쟁지침을 내리면 현대자동차지부장으로서는 기꺼이 받아 안고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5월 30일 5차 본 교섭을 벌인다.

“학살자 전두환과 부역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38주년 5·18민중항쟁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의 힘으로 학살자 손봐야 한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오월학살 진자 주변 미국 반대 ▲한반도 자주통일 실현 ▲노동 적폐 완전 청산 ▲민중 직접 정치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 7천여 명은 5월 1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38주년 5·18민중항쟁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민중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38년 전 오월 대한민국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 ▲언론출판방송은 반드시 사전검열을 받는다 ▲모든 대학은 휴교하고 파업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나라였다”라고 회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 지옥 같은 감옥의 나라에서 모두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광주는 외쳤다. 80년 광주 민중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결사 항전으로 맞서다 끝내 역사의 재단에 수많은 넋을 바쳤다”라며 애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도 학살자 전두환과 부역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우리의 힘으로 오월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민중의 힘으로 손을 봐야 한다”라며 “진정한 적폐

청산을 위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 놓은 법과 제도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한국지엠,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성동조선과 STX조선 등 중형조선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있다”라며 “해고 위주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노동배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규탄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정책을 규탄하고, 노동자 자르기 식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라며 “금속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없는 현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투쟁사에서 “주한 미 대사관의 문서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이 오월학살의 배후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 땅의 적폐세력 뒤엔 항상 미국이 있었다”라며 “노동자가 지주의 나라, 평화와 통일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투쟁사

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하자. 한미 전쟁연습을 당장 건너치우라고 요구하자. 노동자, 농민, 빈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자. 역사는 민중의 힘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함을 잊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어머니 임선복 여사께서 무대에 올라 직접 쓴 편지글을 낭독했다. 임선복 여사는 “어제 이 세상 어느 소식보다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아들의 석방 소식을 들었다. 이 늙은 어머니는 오늘 뜻깊은 오월 광주에서 양심수와 아들의 석방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신 노동자, 농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38주년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민중대회를 마친 노동자와 농민 등은 금남로4가역, 대인교차로, 금남로5가역, 금남로 전일빌딩 앞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불어라 평화의 바람, 평화협정 체결’, ‘보이라 오월의 진실 미국 반대’ 등을 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광주시민과 함께했다.